

'이도류' 오타니, 손가락 물집 때문에 등판 미뤄져

등록 2021.04.09 17:22:56



[로스앤젤레스=AP/뉴스시스]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30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2021 메이저리그(MLB)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, 2회말 코리 시거에 솔로 홈런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. 2021.03.30

[서울=뉴스시스] 김희준 기자 = 올해 다시 투타 겸업에 나선 오타니 쇼헤이(27·LA 에인절스)가 손가락 물집 때문에 등판을 잠시 쉬어간다.

지난 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오타니는 11일(한국시간) 또는 12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.

하지만 조 매든 에인절스 감독은 9일 열린 토론토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1회 끝에 7-5로 승리를 거둔 뒤 오타니의 손가락 물집이 완전히 낫지 않아 등판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다.

3월 30일 LA 다저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투수 겸 2번 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당시 손가락 물집 때문에 2¼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.

이후 손가락 물집이 나아져 오타니는 5일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 겸 2번 타자로 출전했다.

그간 투수로 등판하는 날 타격을 쉬었던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한 경기에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한 것은 처음이었다. MLB닷컴에 따르면 2번 타자 겸 투수로 선발 출전한 선수는 오타니가 역대 세 번째로, 1903년 9월8일 잭 던리비(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) 이후 무려 118년 만이었다.

오타니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우중월 솔로포를 때려냈고, 최고 시속 101.1마일(약 163km)의 강속구를 뿌리면서 만화같은 장면을 연출했다.

당시 투타에서 궤조의 컨디션을 뽐내던 오타니는 5회 홈 플레이트에서 수비를 하다가 호세 아브레유와 충돌했다. 오타니는 쓰러졌다가 일어섰지만 바로 교체됐다.

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고, 에인절스 구단은 투구수에 의한 교체라고 강조했다. 손가락 물집이 투구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.

오타니는 이후에도 타자로 나서며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.

그러나 오른손 중지의 물집 때문에 투수로 등판하는 것은 미루기로 했다. 에인절스 구단은 완전히 회복한 뒤 등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.

매든 감독은 "그냥 물집 치료일 뿐이다.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"이라며 "그것 뿐이다. 우리는 오타니가 물집에서 완전히 회복해 올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. 이 때문에 등판 일정을 미룬 것"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.

9~12일 토론토와의 원정 4연전에 오타니가 선발 등판하지 않으면서 에인절스는 10~12일 앤드류 히니, 호세 퀴타나, 알렉스 콥을 차례로 내보낸다.

오타니의 다음 등판 일정은 손가락 상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. 에인절스는 토론토와의 원정 4연전을 마치면 13~15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 3연전을 치르고, 하루 휴식을 취한 후 17~19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 3연전을 한다.

매든 감독은 "오타니가 언제 등판할 수 있을지는 다음주 초에 알 수 있을 것"이라며 "투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지만, 완벽한 몸 상태로 던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iniju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